장윤정이 '트롯뮤직어워즈 2024'에서 '최고의 트롯상'을 수상한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./사진=뉴스1가수 장윤정·아나운서 출신 도경완 부부가 120억원에 매각한 서울 용산구 고급주택을 한 30대가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. 별도의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아 전액 현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추정된다.17일 뉴스1에 따르면 장윤정 부부가 소유했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'나인원한남' 전용면적 244㎡가 지난달 11일 120억원에 팔렸다.현재 소유권 등기를 마친 상태다. 소유자는 1989년생인 것으로 알려졌다.장 씨 부부는 이번 거래를 통해 약 7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. 이들 부부는 2021년 3월 해당 주택을 50억원에 공동명의로 분양받은 뒤 3년 2개월 만에 해당 면적 최고가인 120억원에 매각했다.같은 면적 직전 거래가이던 2021년 12월의 90억원과 비교하면 30억원 상승했다. 올해 들어 등록된 아파트 실거래가 중 최고 가격이다.나인원한남은 지하 4층~지상 최고 9층, 9개 동, 전용면적 206∼273㎡의 고급주택 단지다. 방탄소년단(BTS) 등 다수 연예인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.